

제주대신문

1954년 5월 27일 창간 (주간) news.jejunu.ac.kr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2016년 6월 8일 수요일 제955호

간호학과 주점 티켓 강매 논란

선 입금 후 티켓 나눠준 후 판매해… 환불은 불가
학생회장 “정당한 절차 밟았다·논란 이유 모르겠다”

아라대동제 기간의 일일주점 운영과 관련해 간호학과의 주점 티켓 강매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의명의 A씨는 제주대신문 제보를 통해 “간호학과에서 주점 티켓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학년별로 티켓 대금을 선 입금 받은 후 학생들에게 티켓을 팔게 했다”며 “티켓을 못 팔았을 경우 환불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티켓 강매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했다.

취재결과 간호학과는 아라대동제 때 일주점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티켓을 판매했다.

티켓의 판매 방식은 학년별로 티켓의 판매수를 정해 학년별 단체 카카오톡에 계좌번호를 올린 후 선 입금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선 입금 확인 후에는 학년별로 구매한 금액만큼 티켓을 나눠주었다. 만약 학

생들이 자신이 구매한 티켓을 다 팔지 못했을 경우에도 선입금한 금액을 환불하지 않는 것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티켓 한 장의 가격은 만원으로, 1학년은 5장, 2학년은 3장, 3학년은 1장의 양을 구매하게 했다. 이렇게 판매된 금액으로 주점을 준비하고 운영했다.

제보자 A씨는 “학교 생활을 가장 적게 한 1학년에게 가장 많은 수의 티켓을 팔아오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결국 티켓을 팔지 못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돈으로 사이하기 때문에 결국 금전적으로 부담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간호학과의 티켓 강매는 몇 년 전부터 반복돼 내려오는 상황이다. 매년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 대학 졸업 후 대부분 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간호학과의 특성상 불합리한 관행

에도 내부고발이 힘든 것이 아니라는 지적

도 나왔다.
이에 대해 고아람(간호학과 3) 학생회장은 “대동제에서 진행되는 주점 운영방식은 학기 초에 진행된 경기총회를 통해 학생들의 90% 이상의 동의를 얻고 결정된 사항이다”며 “과거에는 학생들의 인준을 받지 않고 주점을 운영했지만 올해는 불만사항을 우려해 인준을 받아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타 주점과 달리 간호학과 주점은 수익성 사업이 아니라 기부를 목적으로 한 행사”라며 “주점을 타 학과에 비해 크게 준비하기 때문에 학생회비를 통해 행사를 진행하기에는 금액이 부족했다. 그래서 선 입금을 통해 행사의 비용을 마련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기총회에서 학생들에게 주점을 하는 이유와 선 입금에 대한 이유, 발생하는 이의의 사용처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총회라는 정당한 절차를 밟고 진행을 했는데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해건 기자



5월 28일 제주시청 Indie in Jeju 소극장에서 제주대 동아리 '블랙다이아몬드' 소속 김민후(체육학과 3) 학생이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김민경 기자

제주국제개발협력센터 개소식 예정

제주대 내에 설치된 제주국제개발협력센터 개소식이 6월 22일 오후 3시 본관 3층 회의실과 센터 일대에서 개최된다.

이번 개소식에는 김인식 코이카 이사장과 허향진 총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센터는 제주지역 ODA(공적개발원조) 참여기반 확대를 위해 제주대와 제주도, 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공동으로 설립했다.

정부의 ODA 확대 정책에 따라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교육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지역에도 ODA 시설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설치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센터는 앞으로 제주지역 주민, 학생, NGO, 기업 등을 대상으로 ODA 교육 기회 제공, 신규 ODA 사업 발굴, 사업 수행 컨설팅 등 지역 ODA 사업 지원, ODA 사업 협력 파트너 네트워크 강화, WFK 귀국 봉사 단원 지역 내 활동 강화, 제주 지역 ODA 관련 모니터링과 평가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초대 센터장은 KOICA 이사, 네팔

대사, 필리핀 공사, UNESCO 아-태 과장을 역임한 흥승복 전 대사가 선임됐다.

김해건 기자

취업 위한 무료강좌 OPEN

제주대 총학생회, 취업전략본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LINCS사업단과 ^(주)대학연합 창직캠퍼스사업단이 '제주대학교 창직캠퍼스(온라인강의)' 무료강좌 사이트를 개설했다.

제주대 학생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되는 온라인 강좌로 공무원·취업·직무·NCS·외국어 등 각종 국가·민간 자격증 등 맞춤형 강좌를 탑재했다.

홍희숙 취업전략본부장은 “관련 강좌의 업데이트를 통해 제주대 학생들이 유망 자격증 교육 및 창의적인 직무 자격증 강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이래 기자

학기말 강의 평가 실시

2016년 1학기 강의평가가 6월 15일부터 7월 18일까지, 총 4주간 실시된다.

강의평가는 수강 교과목에 대한 강의방법·내용 등에 대해 학생들이 평가한 내용으로, 담당교수가 확인해 향후 수업개선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교과목은 2016년 1학기 학부에 개설된 전 강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제외 교과목은 일반선택 교과목 중 매 시간 강사가 바뀌거나 수업 진행이 대학 내에서 이뤄지지 않는 S/U교과목이다. 또한 수강인원이 5명 미만인 강좌, 공동강의 강좌 중 참여교수가 4인 이상인 강좌 등이다.

대상자는 교류수학생 등을 포함한 1학기 교과목 수강학생 전체이다. 평가 방법은 하영 Dreamy로 로그인을 한 후 '강의평가' 메뉴를 클릭하고 오리엔테이션을 본 후 강의평가를 진행하면 된다. 평가는 자신이 1학기 때 들었던 과목의 수만큼 동일하게 진행하면 된다.

강의평가 실시기간에 평가를 하지 않은 학생은 하영Dreamy에서 성적을 조회할 수 없게 된다.

김정희 기자

달라지지 않은 정문 교통상황

회차지 공사에도 버스들은 여전히 도로 위 불법주차 단속하겠다고 했지만 지키지 않는 공무원

학생들의 이동이 짊은 정문에서 학생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현재 제주대 정문은 왕복 4차선으로 대학 출입, 첨단산업단지로 향하는 차량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출·퇴근일에 차량들의 왕래가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시내버스의 불법주차, 버스의 시야가림, 과속하는 차량 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도로를 건너는 데는 많은 위협이 따르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 한다’고 적혀 있지만 정문 앞 차량들은 이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과거와 달리 버스회사지의 공간이 확대됐지만 버스들은 회차지에 공간이 있음에도 도로 옆 화장실에 주차를 하거나 한쪽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있다.

제주대신문(928호-보행자 사고 위험 높은 정문 앞 횡단보도, 932호-‘일촉즉발’ 정문 버스 정류장)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또한 당시 인터뷰에서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버스회사에 경고를 주고 단속을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전시 행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한 번씩은 사고의 위협을 느낀다고 말했다. 인근 지역 주민들 또한 정문교통상황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고등학교 근처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제주대 앞을 지날 때마다 매번 버스기사들과 마찰이 있다”며 “그들은 정해진 위치에



버스의 불법주차 등으로 인해 정문 앞 교통이 혼잡한 가운데 한 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이번 학기는 제955호 신문으로 종간합니다

다음호 제주대신문(후기 학위수여식 특집호)은 8월 25일(목) 자로 발행됩니다

작은 정성과 참여가 제주대학교의 저력을 크게 키웁니다

ARS(060)는 한통화에 3000원이 적립되는 작은 금액이지만,
대학발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뜻 깊은 금액인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ARS제대 사랑 수신기금

발전기금에 관심은 있으나 번거로우신 분들은 전화한 통화로도 기금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0 6 0 - 7 0 0 0 - 1 0 2 0

(자) 제주대학교발전기금에서는 ARS(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ARS(060-700-1020)은 한 통화 당 3,000원 금액이 대학 발전기금으로 자동 적립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애정과 관심이 우리대학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방법 : 전화정보교환서비스(ARS 060-700)를 이용하여 후원금을 모금하고 정보이용료 및 수납대행료 납부

번호 : 060-700-1020(대학 신주소 제주대학교 102호)

후원금 : 1통화당 3,000원

안내멘트 :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발전기금 모금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소리가 난 후부터는 전화사용료 외에 3,000원의 발전기금이 후원되오니 원치 않으시면 끊어주십시오. 빠~ 보내주신 후원금은 제주대학교 발전을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 후문 교통, 학생들에게 위협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안전설치물로 학생들 위협

시청 “가상과속방지턱·가로등 설치 검토하겠다”

산천단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 및 뒷길을 포함한 학교 후문 일대가 통행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 산천단 버스정류소는 학교 후문에 위치한 유일한 정류소이다. 때문에 학교 후문으로 통학하는 많은 학생들이 버스정류소를 비롯한 산천단 뒷길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버스정류소로 향하는 길인 산천단 다리는 차도와 인도가 구분돼 있지 않고, 5.16도로 위의 산천단 버스정류소는 차가 급속하게 달리는 구간에 위치해 있어 보행자에게 큰 위험을 준다. 또한 서귀포시로 넘어가는 건너편 버스정류소는 인도가 일부분만 설치돼 있고 횡단보도는 그 표시만이 있어 학생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뿐만 아니라 후문 뒷길 일대에 있는 가로등의 수가 뒷길의 전체적인 면적에 비해 적고 그 밖기마저 상당히 어두운 편이다. 이로 인해 밤에 학생들이 산천단 버스정류소와 뒷길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 더 큰 위협이 따르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보니 후문을 이용하는 많은 학생들이 사고위험에 대한 불안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상규(경영학과 2)씨는 “기숙사 생이라 보통 후문 뒷길로 걸어 나가 산천단 버스정류소를 이용한다”며 “버스정류소가 차가 가속되는 지점에 놓여 있어 인도 바로 옆으로 차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지나간다. 건너편에는 인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귀포에서 통학을 하는 오수빈(사회학과 3)씨는 “후문과 버스정류소 사이의 거리가 멀고 경사가 있어 곳은 날씨에는 통행하는 것이 특히 불편하다. 또 밤에 산천단 뒷길이 너무 어둡다”며 “안전에 유의하는 것이 전적으로 통행자의 뒷길에 달려 있는



후문에 위치한 산천단 버스정류장 앞에 있는 횡단보도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두운 저녁 시간만이라도 후문까지 학교 서틀버스가 운행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지환(초등체육교육전공 3)씨는 “기숙사에 살면서 사라캠퍼스로 통학하기 때문에 수업이 끝난 늦은 저녁에 산천단 버스정류소에서 내려 후문 뒷길로 자주 다닌다”며 길을 건널 때 이용하는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하천 부근의 길에는 가로등 시설이 미비하다는 점

도 함께 지적했다.

이 문제에 대해 시청 건설과의 관계자는 “산천단 후문의 특성상 횡단보도에 신호등이나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데는 여력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도로면 위로 돌출되지 않고 표시만을 통해 자동차의 과속을 방지할 수 있는 가상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로등은 사전검토를 거친 후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소현 기자

대학특성화 사업단 100% ‘재진입’

향후 3년간 총 108억원(매년 36억) 지속 지원

특성화 역량·지역경제 발전 기여에 기대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대학 특성화(CK-1) 사업 중간 성과평가에서 제주대가 기준 선정된 4개 사업단 모두 재진입하는 성과를 이뤘다.

CK사업은 지역사회 수요에 기반한 대학의 강점 분야를 특성화해 대학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학부지원 사업이다. 2014년 7월에 시작된 CK 사업은 2019년 2월까지 진행하는 5년 사업이며, 이번 중간평가 결과 106개 대학 338개 사업단 중 248개 사업단은 우수 사업단으로 인정받아 남은 사업기간 동안 계속지원을 받게 됐다. 사업단은 향후 3년간 총 108억원(매년 36억원)을 지속적으로 지원받는다.

4개 사업단은 참여학과의 전공을 잘 살린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참여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제주문화콘텐츠 창의인재양성사업

업단(단장 김동전 사학과 교수)은 국어국문학과, 사학과가 참여해 △문화콘텐츠전문인력 양성 트랙 운영 △참여학과 전공 교과과정의 특성화 과목 개설 △창의 아카데미 문화콘텐츠 전문가 특강 △문화원형 및 문화콘텐츠 현장 답사 등을 운영하며 제주문화를 보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제작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와 청정에너지 융복합 산업 인력양성사업단(단장 이개명 전기공학전공 교수)은 △전기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전자정보통신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 △기계공학전공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에너지공학전공 △생명화학공학전공 등 8개 학과가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단에서는 국책사업화한 제주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학술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아열대 농생명 융복합산업 인재양성사업단(단장 백석운)은 “향후 3년간 재주지역 산업과 관련된 인재양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 대학 특성화 역량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희 기자

강태선 회장
발전기금 1억원 전달

강태선(■)
블랙야크 회장이 5월 26일 제주대 개교 64주년 기념식에서 인재양성관 건립기금으로 1억원을 전달했다.

앞서 강 회장은 지난 2012년과 2013년엔 ‘블랙야크 장학기금’으로 각각 1억원씩을 출연한 바 있다.

한편 강 회장은 서귀포시 예래동 출신으로 오현고와 탐라대를 졸업, 동국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73년 24살의 나이에 등산용품 산업에 뛰어 들어 국내 순수 토종브랜드 ‘블랙야크’를 국내 굴지의 브랜드로 한국 대표 브랜드로 키워낸 자수성가형 기업가이다.

김정희 기자

현재옹 대표, 장학금 전달

현재옹(■)
한라산 대표이사가 5월 26일 제주대학교 개교 64주년 기념식에서

인문대학 독일학과 4학년 장가영씨 등 16명에게 각 100만원씩 총 16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라산은 제주지역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우수학생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6억원의 ‘한라산 기금’을 조성해 지난 2007년부터 매해 개교기념식에서 우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이래 기자

외국어 특별강좌 학생 모집

외국어교육원(원장 김원보) 통번역 대학원 교수)이 2016학년도 여름방학 외국어 특별강좌를 실시한다.

프로그램으로는 기초 영어회화, 원어민 영어회화, 토익, 시사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이 있다.

강좌기간은 6월 27일부터 8월 5일(주말 제외)이며 접수기간은 6월 7일부터 선착순이다.

방법은 외국어교육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 한 후 수강자 명의로 무통장 입금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대 외국어교육원에 문의하면 된다.(전화 754-2291 ~2)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게 즐거워요”

2012년 3월 5일 제주대에서 창단된 교직원 합창단

노래를 좋아하고 관심이 있다면 언제든지 환영

제주대 교직원 합창단이 6월 1일 제주장애인평생학습센터에서 공연을 가졌다. 이번 공연에서는 저희자 황경수 교수(행정학과)와 단장 김홍수 교수(전과정보통신공학전공)를 비롯해 제주대 교직원 합창단원들의 악기연주와 합창공연이 이뤄졌다.

황경수 교수의 인사말과 노래를 시작으로 ‘상록수’, ‘사명’, ‘몽계구름’의 플루트 연주가 이어졌다. 합창단 전체 공연으로는 ‘만남’, ‘아름다운 강산’, ‘어머니’ 곡을 불러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창단 멤버로서 교직원 합창단을 만드는 데 많은 기여를 하신 김홍수 교수를 만났다.

▶ 합창단을 만든 계기는.

노래가 좋아서라는 단순한 이유로 시작했다. 합창단을 만들기로 결심했을 때 교수들과 만남을 주선하기가 어려웠다. 그때 황경수 교수에게 ‘합창단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는데 황 교수가 적극적으로 좋다는 의사표시를 해줘서 지금의 합창단이 만들어졌다.

▶ 제주 교직원 합창단에 대한 소개를 부탁한다.

2012년 3월 5일 창단된 우리 합창단은 제주대에 소재지를 두고 있으며, 합창을 통해 제주대 내 교직원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합창의 즐거움

행사 참여나
봉사연주를 준비하기 위해 월요일 저녁 6시부터 1시간 동안 연습을 한 이후 저녁 악속을 전파정보통신공학전공



김홍수 교수

전파정보통신공학전공
잡지 않으니 전혀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 단원들과 즐겁게 노래연습만 하고 헤어진다.

입단 문의는 내게 직접 문의하거나 황경수 교수, 사범대학 행정실 김미경 선생님에게 연락하면 된다.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오셔서 좋은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업무적·연구적 스트레스를 함께 풀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을 기다리겠다.

김지영 기자



6월 1일 제주장애인평생학습센터에서 교직원 합창단이 합창공연을 하고 있다.

디지털애니메이션센터와 연구교류 업무협약

제주대와 (재)디지털애니메이션 진흥센터(이사장 정경포)가 6월 2일 제주대에서 연구교류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3D CGI(컴퓨터영상합성기술) 애니메이션 제작인력 양성 교육과정 공동 운영, 인턴십 및 취업지원, 현장 견학 및 실습활동 지원 등에 협력키로 했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와 제주도는 지난날 글로벌 애니메이션 발굴·제작·유통 지원과 CGI 발전을 위해 총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 서귀포시에 아시아 CGI애니메이션센터(ACA)를 설립한 바 있다.

(재)디지털애니메이션진흥센터는 ACA센터를 위탁 운영해 세계 최대 애니메이션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국내 기업을 진출시키고 판로를 개척한다.

김정희 기자

제주언론학회, 9일 학술세미나 개최

‘지역문화 정책과 언론의 역할’

사단법인 제주언론학회(회장 박경숙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6월 9일 제주 카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지역 문화정책과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박경숙 회장은 ‘고립’과 ‘다름’의 문화를 넘어서 ‘공유’와 ‘같이’의 문화 가치 추구는 지역언론에 던져진 중요한 과제”라며 “학술세미나를 통해 타문화를 이해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건 기자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향진 편집인·주간 김치완 편집국장 김해건

우)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전화안내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미디어JUMP news.jejunu.ac.kr

사람들

김혜연 교수 ‘한국 코칭’
한일 심포지엄 주제 발표

제주 대
제주교총리
더십센터장
인 김혜연
(생활환경
복지학부)
교수가 5월
28일 일본
동경에서 최초로 열리는 한일 코칭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김 교수는 한국코치협회 김재우 회장과 한국의 공동대표 발표자의 자격으로 참석했다.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코칭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의 참석과 발표는 최근의 코칭문화 확산과 전문화에 있어서 있어서 더욱 주목된다.

김 교수는 “한국 코칭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의 참석과 발표는 최근의 코칭문화 확산과 전문화에 있어서 더욱 주목된다.

김 교수는 “한국 코칭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의 참석과 발표는 최근의 코칭문화 확산과 전문화에 있어서 더욱 주목된다.

김 교수는 “한국 코칭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의 참석과 발표는 최근의 코칭문화 확산과 전문화에 있어서 더욱 주목된다.

김 교수는 “한국 코칭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의 참석과 발표는 최근의 코칭문화 확산과 전문화에 있어서 더욱 주목된다.

김 교수는 “한국 코칭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의 참석과 발표는 최근의 코칭문화 확산과 전문화에 있어서 더욱 주목된다.

김 교수는 “한국 코칭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의 참석과 발표는 최근의 코칭문화 확산과 전문화에 있어서 더욱 주목된다.

김 교수는 “한국 코칭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의 참석과 발표는 최근의 코칭문화 확산과 전문화에 있어서 더욱 주목된다.

김 교수는 “한국 코칭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의 참석과 발표는 최근의 코칭문화 확산과 전문화에 있어서 더욱 주목된다.

오상학 교수 저서

학술원 우수도서 선정

제주 대
대학원 풍
력 공학부
고경남 교
수 연구팀
(교수 허
종철·정지
현, 박사과
정 신동현, 석사과정 변종기·손진
혁)이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
모한 ‘2016년 에너지기술개발사
업’ 과제에 최종 선정 됐다.

과제명은 ‘나셀 라이다를 이용한 풍력발전설비 및 풍력단지 출력성
능 측정 기술개발’이다.

이 과제는 2018년 12월까지 2년8
개월간 수행되며, 총 사업비는 2

》 아라대동제를 바라본 다인다각(多人多角)의 시선

대학 축제를 넘어 도민의 축제였던 2016 아라대동제

총학생회 측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현장 만족도도 높아”

학생들 “프로그램 만족했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 많아”

교수 “대학 축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 가야”

제주대에서 열리는 아라대동제는 더 이상 재학생들만을 위한 축제가 아니다. 대운동장에서의 진행,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제주도내의 가장 큰 축제이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그렇다면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동제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축제를 준비·기획했던 사람들은 물론, 축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을 담아봤다.



김태준(정치외교과 2)·고태훈(정치외교과 3) 학생이 장터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다.

◇관람형 축제에서 체험형 축제로

아라대동제는 3일이었지만 준비과정은 그리 녹록치 않았다. 총학생회 소속 학생들은 축제가 열리기 전부터 오랜시간 기획을 했고, 4일 전인 5월 20일인 금요일부터 그동안 대동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노점상 단속을 하기 위해 범낮을 가지 않고 뛰었다.

‘내일로’ 총학생회 강민우(환경공학과 4) 회장에게 축제의 전반적인 기획의도를 물었다.

강 회장은

“이번 축제의

테마를 ‘즐기고 놀 수 있는 문화’로 잡고 기획했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버블사커와 서바이벌 등 직접 참여해 축제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참여한 학생들의 현장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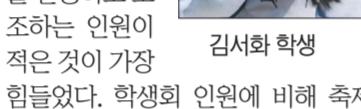
이어 교내 교통에 관해서는 “그동안 주도로를 점령하고 있던 노점상 문제도 대회를 통해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냈지만 빈 주도로에 일반 차량들의 불법 주차 문제가 새로 생겼다. 가이드라인을 치는 등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지만 전체적인 기획의도를 생각한다면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인원 통제·쓰레기 문제 힘들어

축제기간 동안 학생들의 질서와 안



전 등을 위해 봉사했던 ‘내일로’ 총학생회 소속 김서화(관광경영학과 3)씨는 “축제를 진행하고 보조하는 인원이 적은 것이 가장 힘들었다. 학생회 인원에 비해 축제 방문객 수가 월등히 많았기 때문에 인원 통제부분이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축제 장소 안에서 흡연을 하는 분들을 통제하는 것 등이 쉽지 않았던 것 같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김서화 학생

이어 “날씨는 곧 방문객 수와 직결

되고 방문객은 곧 행사의 흥망을 결정하기 때문에 축제 첫 날에 비가 왔던 게 좀 아쉬웠다. 축제를 진행하면서 일반 학우 분들의 바람들을 모두 실현해 드릴 수 없는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학우분들이 이 학교생활을 하시면서 예전보다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소연 학생

이어 “교통의 혼잡함을 피하기 위

해 마련된 버스 운행의 취지는 좋았지만 인원을 더 생각해 배차를 늘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아 학생

이어 “교통의 혼잡함을 피하기 위

해 마련된 버스 운행의 취지는 좋았지만 인원을 더 생각해 배차를 늘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희 학생

이어 “교통의 혼잡함을 피하기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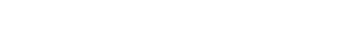
해 마련된 버스 운행의 취지는 좋았지만 인원을 더 생각해 배차를 늘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희 학생

이어 “교통의 혼잡함을 피하기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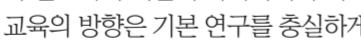
해 마련된 버스 운행의 취지는 좋았지만 인원을 더 생각해 배차를 늘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희 학생

이어 “교통의 혼잡함을 피하기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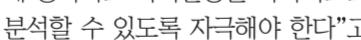
해 마련된 버스 운행의 취지는 좋았지만 인원을 더 생각해 배차를 늘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희 학생

이어 “교통의 혼잡함을 피하기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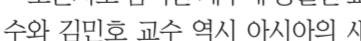
해 마련된 버스 운행의 취지는 좋았지만 인원을 더 생각해 배차를 늘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희 학생

이어 “교통의 혼잡함을 피하기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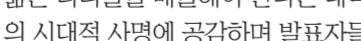
해 마련된 버스 운행의 취지는 좋았지만 인원을 더 생각해 배차를 늘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희 학생

이어 “교통의 혼잡함을 피하기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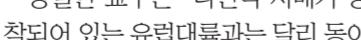
해 마련된 버스 운행의 취지는 좋았지만 인원을 더 생각해 배차를 늘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희 학생

이어 “교통의 혼잡함을 피하기 위

해 마련된 버스 운행의 취지는 좋았지만 인원을 더 생각해 배차를 늘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희 학생

이어 “교통의 혼잡함을 피하기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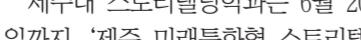
해 마련된 버스 운행의 취지는 좋았지만 인원을 더 생각해 배차를 늘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희 학생

이어 “교통의 혼잡함을 피하기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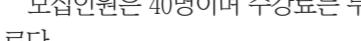
해 마련된 버스 운행의 취지는 좋았지만 인원을 더 생각해 배차를 늘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희 학생

이어 “교통의 혼잡함을 피하기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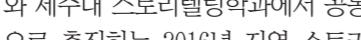
해 마련된 버스 운행의 취지는 좋았지만 인원을 더 생각해 배차를 늘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희 학생

이어 “교통의 혼잡함을 피하기 위

해 마련된 버스 운행의 취지는 좋았지만 인원을 더 생각해 배차를 늘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희 학생

이어 “교통의 혼잡함을 피하기 위

해 마련된 버스 운행의 취지는 좋았지만 인원을 더 생각해 배차를 늘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희 학생

이어 “교통의 혼잡함을 피하기 위

해 마련된 버스 운행의 취지는 좋았지만 인원을 더 생각해 배차를 늘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희 학생

이어 “교통의 혼잡함을 피하기 위

해 마련된 버스 운행의 취지는 좋았지만 인원을 더 생각해 배차를 늘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희 학생

이어 “교통의 혼잡함을 피하기 위

해 마련된 버스 운행의 취지는 좋았지만 인원을 더 생각해 배차를 늘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희 학생

이어 “교통의 혼잡함을 피하기 위

해 마련된 버스 운행의 취지는 좋았지만 인원을 더 생각해 배차를 늘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희 학생

이어 “교통의 혼잡함을 피하기 위

해 마련된 버스 운행의 취지는 좋았지만 인원을 더 생각해 배차를 늘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희 학생

이어 “교통의 혼잡함을 피하기 위

해 마련된 버스 운행의 취지는 좋았지만 인원을 더 생각해 배차를 늘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희 학생

이어 “교통의 혼잡함을 피하기 위

해 마련된 버스 운행의 취지는 좋았지만 인원을 더 생각해 배차를 늘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희 학생

이어 “교통의 혼잡함을 피하기 위

해 마련된 버스 운행의 취지는 좋았지만 인원을 더 생각해 배차를 늘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희 학생

이어 “교통의 혼잡함을 피하기 위

해 마련된 버스 운행의 취지는 좋았지만 인원을 더 생각해 배차를 늘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희 학생

이어 “교통의 혼잡함을 피하기 위

해 마련된 버스 운행의 취지는 좋았지만 인원을 더 생각해 배차를 늘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희 학생

이어 “교통의 혼잡함을 피하기 위

해 마련된 버스 운행의 취지는 좋았지만 인원을 더 생각해 배차를 늘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희 학생

이어 “교통의 혼잡함을 피하기 위

해 마련된 버스 운행의 취지는 좋았지만 인원을 더 생각해 배차를 늘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희 학생

이어 “교통의 혼잡함을 피하기 위

해 마련된 버스 운행의 취지는 좋았지만 인원을 더 생각해 배차를 늘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희 학생

이어 “교통의 혼잡함을 피하기 위

해 마련된 버스 운행의 취지는 좋았지만 인원을 더 생각해 배차를 늘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희 학생

이어 “교통의 혼잡함을 피하기 위

해 마련된 버스 운행의 취지는 좋았지만 인원을 더 생각해 배차를 늘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제36회 백록문학상 당선작 발표

» 시 당선작

정의할 수 없는

조 안나 (국어국문학과 3)

처음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존재를 확인하기도 힘든 크기였던 말입니다.

별로 신경 쓸 일도 아니다 싶어서 우리 모두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끔찍한 것이 글쎄,

어느 날부터 조금씩 커지더니....

그는 마치 눈보라 속에

홀로 남겨진 이처럼 온몸을 떨며

점점 얼어붙어 간다는 듯이

자신의 몸을 부동켜안았다.

그 이후의 일은 듣지 않아도 알고 있었다.

그것은 하나의 언어였다.

그 이상으로 칭할 이름은 없었다.

내가 처음으로 마주했을 때는

이미 찾지 않아도 보일정도로 커져

공간에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모습에 놀라 뒷걸음질 치고 있던 그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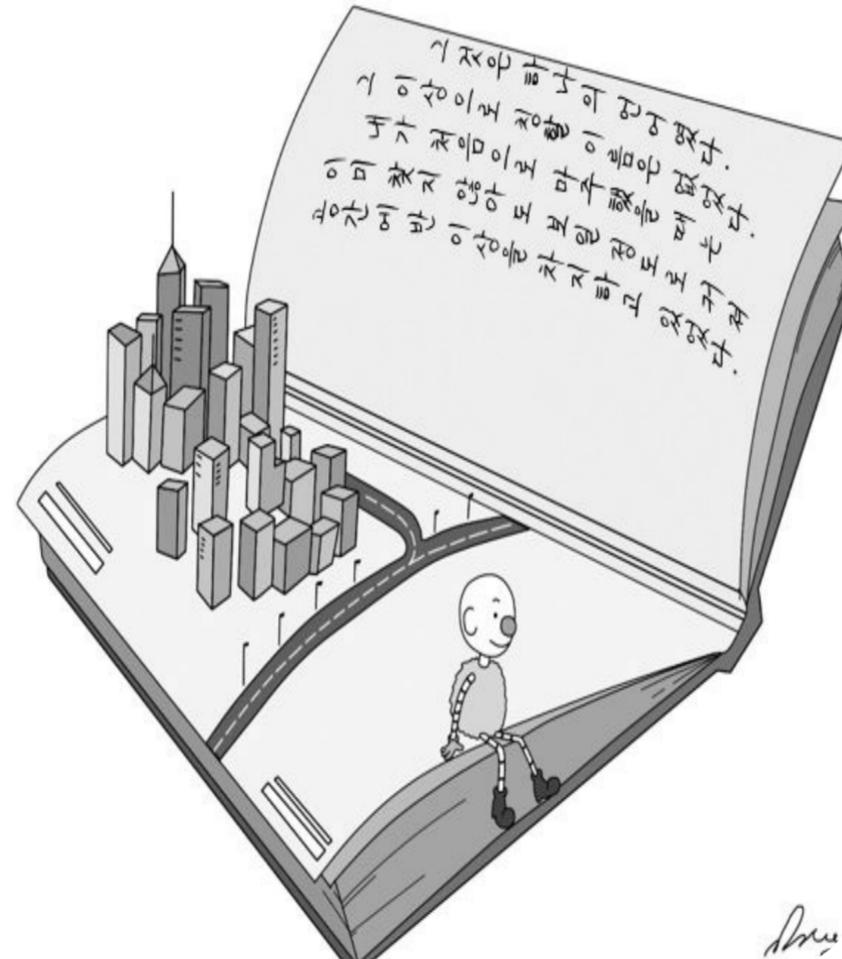
그들에게 달려든 거대한 언어가,

구멍이란 구멍은 모두 다 틀어막고,

보랏빛으로 질려가는 그들의 머리부터,

조금씩, 차근, 차근,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그렇게 그들의 자리를 차지해가기 시작했던 것.



» 소설 당선작

나를 위한 동화

이연희 (국어국문학과 3)

애- 문득, 머릿속으로 어떤 목소리가 흘러들어왔다. 애야-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다. 그저 말 그대로 문득, 흘러들어왔다. 그리고 갑자기 푸른색이 눈앞을 가득 채웠다. 모든 게 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목이 아프고 손이 저렸다. 영기도 하리도 아팠다. 나는 내가 내내 고개를 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딱딱한 바닥에서 고집스럽게 다리를 끌어안고 앉아 있다는 것도. “괜찮니, 애야?”

머릿속에서 울리던 목소리였다. 나를 부르는 것 같아 잘 움직이지 않는 고개를 내리자 눈길이 가는 곳마다 색색으로 빛났다.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의 주인을 찾아보려 했지만 얼마나 앉아있던 건지 몸이 잘 움직이지 않았다. 몇 번을 넘어진 후에야 제대로 설 수 있었다. 딩고서 있는 땅이 걸었다.

주변은 조용했다. “여기란.” 목소리의 주인을 찾아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으니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들린 쪽에는 가로수들만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늘어서 있었다. 고요한 풍경이었다. 지나가는 사람도 바람도 없이 모든 게 멈춰있는 듯 했다. 그래서 일까. 거리가 이상하게 낯설었다. “그래, 여기야.”

가로수 중 하나의 나뭇잎이 흔들렸다. 다른 가로수

들보다 키가 컸고, 유독 하늘을 향해 가지가 뻗어 있었다. 전기지들이 억지로 쳐내진 다른 나무들과 달리 그 나무만은 가지 끝이 온전했다. 그쪽으로 다가가자 나뭇잎이 더욱 부드럽게 살랑거렸다.

여전히 바람은 불고 있지 않았다. “안녕?” “어... 안녕하세요?” 가까이에서 본 나무는 더욱 거대했다. 바로 옆에 있는 나무가 한참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보도블록 위에 난 흙은 흙바닥을 가득 채워 마치 아스팔트와 블록과 한 몸으로 자라난 것 같았다. 아름다운 나무였다. 내 감탄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 가는 가지들과 나뭇잎이 잘게 펼렸다. 웃어서 몸이 펼리는 것 같은 모양새였다. “뭘 보고 있었니?”

나무가 더 말해주기를 기다렸지만 더는 말이 없었다. 왜인지 내 앞에 선 나무가 나를 잘 아는 것처럼 느껴졌다. 오랫동안이라면 얼마만큼의 시간을 말하는 걸까. 어쩌면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나를 지켜보았는지도 모른다. 갑자기 굉장히 묘한 느낌이 들었다. 달이 밤에 뜬다는 것을 떠올릴 때처럼 머리가 명해졌다.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꼭 방금에 야 태어난 것 같았다.

푸른색이 내 눈앞을 채웠을 때, 모든 게 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을 때, 그게 내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기억이었다. 그 전에도 내가 존재했다는 걸 분명히 아는데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건 이상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어렴풋한 달. 그 흐릿한 이미지가 더 답답해서 속이 울렁거렸다. “괜찮니?” “이상해요. 저는 왜 여기에 있나요?” 한 번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자 모든 게 이상해보였다.

» 시 심사평

자신만의 세계 드러내... 문학적 성장 기대

이번 백록문학상 공모전에서 시작품은 수준이 높은 편이었다. 총 62편 중에서 <갈 곳 없는 이에게(1)>, <수마>, <정의할 수 없는>, <길>, <눈물은 왜 짠가> 등 5편으로 압축됐다. 예선에 오른 작품들은 그 수준에 있어 큰 차이가 없어 당선작을 선정하는데 애를 먹었다. 그래서 응모자의 다른 작품들의 수준을 살펴보고 이 중 <정의할 수 없는>을 당선작으로 뽑게 됐다.

『정의할 수 없는』은 시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있는 작품이었다. 시란 개연성을 바탕으로 구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불잡기 힘든 추상적인 세계를 상상으로 구상화해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개성이 있는 시인은 자신만의 세계를 설립한다고 한다. 당선작이 바로 이런 특성을 살리고 있는 시적 특성을 담아내고 있었다.

사실 이번 응모작품 중에는 일상 어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작품들도 있었다. 이런 작품들은 SNS 상에 떠돌고 있는 언어 수위에 갇혀 시를 너무 안 이하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 일상의 어감 고운 어휘를 나열하는 경우, 큰 의미 없이 가운데 정열을 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이런 작품들은 신선한 맛을 잃어버리고 진부해져 시적 긴장에 실패하고 있었다.

『정의할 수 없는』은 단연 빼어났다. 인식의 씨눈이 점점 커져서 존재를 드러내고 자리차지에 이르는 과정을 그려나가고 있는데, 문학적 성장을 기대하게 해 주는 작품이었다. 마지막으로 역사나 시대, 사회적 소재에서 남다르게 인식하고 이를 시적 표현으로 내비쳐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겸허한 자세로 꾸준한 정진 부탁드린다.



양영길 시인과 고시홍 소설가가 5월 27일 신문방송사에서 백록문학상을 심사하고 있다.

» 당선소감

백록문학상은 내게 있어 커다란 반환점



조안나 (국어국문학과 3)

솔직히 어지러운 마음으로 쓴 탓에 완전히 포기하고 있었는데 당선됐다는 말에 정말이지 믿을 수 없었다. 일단은 이런 글을 읽은 데다 평가까지 하게 된 심사 위원분들께 감사와 사과의 말씀 올린다. 내 글로 인해 글을 보는 눈이 낮아지지 않았길...

올해는 시를 쓰기에 최고로 힘든 해였다. 시 관련 강의를 듣다보니 예전엔 아무 생각 없이 그적었던 글들을 생각하며 쓰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쓴 시들은 그 성장의 발로이며 남들에게 보이기 부끄러운 것들뿐이다. 그중에서도 <정의할 수 없는>은 넓지 않으려다 많은 고민 끝에 끝자락

에 넓게 된 글이다. 원래 어려운 시를 그리 좋아하지 않아서 어려운 시에 접하려 하지 않았는데 시 관련 강의들에서 어떻게 접하다보니 그에 영향 받게 됐고 나도 모르는 새 완성돼 버린 시이다.

많이 부족해서 무언가를 부여해 달라기에도 미안한 시지만 그래도 나름에 스토리가 있는데다 그게 상황에 따라 어떤 의미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시에 부여한 의미를 말한다면 고정된 이미지에 막혀 그러한 것을 찾는 재미가 떨어질 것 같아 별다른 사설은 붙이지 않으려 한다.

이번 백록문학상은 여러 난제에 빠져있던 내게 가장 큰 난제였으며 그랬기 때문에 커다란 반환점이 됐다. 배운 것도 얻는 것도 많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1학기 가장 큰 영향을 준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글을 마친다.

어버린 것 마냥 고요했다. “저는 무엇인가요?” “나는 너와 비슷한 존재들을 많이 보았어. 대부분 한 가지만을 죽이고 있었지. 너처럼 다른 건 기억하지 못했던다.” “그들은 죽은 사람들인가요?” “그랬을 수도 있지. 아닐 수도 있고.”

나무는 또다시 알 수 없는 대답을 했다. “어떤 이들은 다시 살아가기 시작하더구나. 하지만 어떤 이들은 계속 한 가지만 죽었고, 또 어떤 이들은 어느 날엔가 모습을 감추고 영영 볼 수 없었어.” 나무가 이제껏 한 말 중 가장 길었다. 그리고 그만큼 어려웠다. “저도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글쎄.” 자신도 모르겠다는 듯이 말을 잘랐지만 왜인지 나무가 그 대답을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다시 묻지는 않았다. 대신 다른 것을 묻고 싶었다. 살아간다는 것은 무언가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건 어떤 느낌인지, 다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었다. 다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큰 감정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저는 누구인가요?” “그건 누구보다 네가 더 잘 알지 않겠니?” “하지만,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걸요.” “그렇다면 그건 네가 알아내야 할 문제란다.” 나무는 나뭇잎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이번에는 나무의 말을 어렴풋이 알 것도 같았다. 하지만 나는 나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몇 살이냐 되었는지도 모른다. 가족은 있는지 또 친구는 있는지는 물론, 하늘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바람도 없이 흔들리는 나뭇잎을 올려놓은 심장 부근은 너부도 차가웠다. 가슴께를 아우리 더듬거려도, 꼭 눌러보아도, 가슴 안쪽은 텅 비

바다가 코앞에 있었다. 깜짝한 바다 냄새가 폐 안으로 가득 들어왔다. 시멘트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바다는 이상하리만치 잔잔했다. 수평선이 보이고 그 옆에 우직하게 서 있는 등대가 보였다.

마지막 기억 속의 바다였지만 별로, 아무 데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그대로 나를 스쳐지나갔다. 닿지도 못했다. 내가 그 자리에 없는 듯이, 그가 걸어오던 게 아닌 듯이. 새로운 기억도 없었고, 떠올렸던 기억도 희미한 채로 남아 있었다. 내가 억지로 끼워 넣은 얼굴만이 달라졌다. 믿을 수가 없어서 그를 잡아보려 했지만 잡을 수 없었다.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뒤로 돌아보지 않고 길 너머로 사라졌다.

그가 왜 도망친 내 앞에 나타났는지는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그가 있는 곳을 찾아가게 된 건지도 모른다. 알고 있는 것은, 나는 여전히 그가 누군지 모른다는 점이었다.

물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다. 왜일까. 마지막까지 놓지 못했던 사람인데, 내 전부였던 사람인데. 갑작스럽게, 준비도 되지 않은 채로 이루어진 만남이었지만 이렇게 허무할 줄은 생각도 못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다. 이름을 정하는 걸 서두를 필요는 없다면 하늘의 말이 생각났다. 이런 뜻이었을까. 내 이름은 달이 아니었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없었다. 아무것도 없다. 모두 끝났다….“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가 갑자기 웃음을 파고들었다.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바다 깊은 곳으로 잠겨 들어가다가 단번에 수면 밖으로 던져진 느낌이었다. 머리인지, 시야인지, 어질어질했다. 여자가 보였다. 딱히 나이가 들어보이지도, 그렇다고 어려보이지도 않는 어지였다. 어떤 걱정도 없는 듯 편안해 보이는 얼굴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제가, 보여요?” “아주 잘 보여요.” 여자는 목소리만 큼 밝게 웃었다. “제가, 사람이세요?”

환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무심코 질문을 던지고 이차 했다. 비보 같은 질문이었다. 하지만 여자는 비웃지 않고 다정하게 답해 주었다. “사람은 맞아요. 그쪽도 사람이에요?” “네. 아, 저기. 살아있지는 않지만요.” “나도 그래요.” 열렬했다. 나와 같은 사람은 처음이었지만, 모두 다 끝난 후인데 무슨 소용일까 싶었다.

절망이 다시 나를 파고들려 했지만, 여자의 물음이 나를 붙잡았다. “여기는 어떻게 왔어요?” “기억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세상 다 산 얼굴로 앉아 있어요?” 티가 많이 났던 걸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좋지 않은 솔내를 들켜버렸다. 머쓱하게 얼굴을 매만졌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데 여자가 다시 말을 건넸다. “안 좋은 일이 있었나요?” “네, 조금요.” “힘들었겠네요.” 여자가 몸을 움직여 내 옆에 앉았다. “저도 기억을 따라왔어요. 이곳이 마지막이죠.” “마지막이요?”

그녀가 바다를 가리키며 말했다. “정신차려보니 저 어디쯤에 있었어요. 파도도 거의 치지 않는 바닷물에 떠밀려 왔어요.” 무서웠을 텐데도 여자는 담담했다. 나에게는 하늘이 있었지만 이 사람에게는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혼자서 떠나 다시 혼자서 이곳까지 돌아왔다.

“난 내 밭을 바다로 걸어 들어간 거예요. 그거 하나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지만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녀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내 표정을 알 수 없어서 그녀를 바라볼 수 없었다. 그래서 고집스럽게 바다만 바라보았다. 수면이 해가 지면서 불그스름하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다른 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쪽도 그렇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내가 왜 자살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명령한 것인가를 할 수 있는지 화가 났어요.”

그녀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 되찾은 기억들을 떠올리고 있지 않을까 싶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 바다로 내몰렸던 순간들. 그녀를 따라 나도 다른 생각에 잠겼다. 내가 떠올릴 것이라고는 달과 기억 속의 그 사람밖에 없었다. 내 전부였던 사람.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니었다.

“제이는 다 알아요. 명령한 것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이해는 돼요. 당신은 아직 길이 많이 남아있겠죠.” 그녀가 나를 보며 물었다. 대답을 바란 것 같지는 않았다. “당신과 같은 얼굴을 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조금 더 겁에 질려 있었지만요. 자신을 찾을 수 없다고 했어요. 찾고 있던 것이 답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영영 자기를 알 수 없을까봐 겁에 질려 있었어요.” 꼭 내 이야기 같았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녀가 내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은 포기해버

렸어요.” 그렇구나. 아무렇지도 않았다. 조금, 아주 조금 마음이 가라앉을 뿐이었다. 나도 막 포기하려던 참이었으니까 그 사람이 포기해버린 것에 대해 비난할 수 없었다. “포기한다는 건, 녹아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 안다는 듯 그녀의 눈이 나를 질책해왔다. “모든 걸 놓아버리는 순간, 그 자리에 그냥 녹아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있지만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말 끝이 나는 거죠.”

그녀의 눈빛에 숨이 막혔다. 그녀의 말 때문인지도 모른다. 하늘이 나를 불러 깨우기 전이 생각났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그곳에 있다는 것도 모르던 때. 그렇게 되어버리는 걸까.

흐릿한 내 기억처럼 나도 세상의 흐릿한 기억이 되어서 있는 듯 없는 듯 사라져버리는 걸까. 나는 그려고 싶은 걸까. “당신도 포기하고 싶은 적이 있었나요?” 여자에게 물었다. “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포기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거든요. 스스로 목숨을 저버린 주제에 무섭더군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른 사람을 많이 만났나요?” “이제 빠로 오랫동안 돌아다녔으니까요.”

진지하게 말하던 여자가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가볍게 웃었다. 편안한 표정과 여유 있는 태도는 여기에서 나온 것이었나 보다. 그녀에게는 나를 비난할 자격이 있었다. 그녀는 혼자서 모든 것을 잘 견뎌냈다. 그에 비해 나는 너무 쉽게 포기해버렸다. 처음은 하늘에 도움을 받고, 기억은 겨우 두어 번 떠올렸을 뿐이다. 아주 조금 발버둥을 치다가 이내 지쳐서 단념해버리고 마는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았다. 그녀를 따라 바라볼 수가 없었다. 내가 너무 작게만 느껴졌다.

“힘든 거 알아요. 하지만 무서워하지 말아요. 모두 다 겪고 있는 일이니까요. 그냥 밟길 가는 데로 따라가면 돼요. 꼭 참고 여행하다보면 모두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정에 휩쓸리지 말아요. 당신의 기억에 휩쓸리지 말아요.” 불안해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면 세상이 모두 보여줄 거예요.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녀는 이 얘기 를 해주고 싶었던 것뿐이라며, 이제 가봐야

할 시간이라고 미련 없이 일어났다. 나는 작별인사도 없이 바다로 걸어 들어가는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녀의 끝이자 시작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내가 끗듯이 걸어간다면, 언젠가 저 뒷모습이 나의 뒷모습이 되리라는 것도 알았다. 열게 갈린 어둠 위로 달이 모습을 드러냈다. 잠깐 달로 시선을 돌린 그 짧은 시간에 그녀는 사라졌다. 수평선이 어둠을 빨아들이며 본격적으로 어둠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나에게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고,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내가 포기하지 않을 힘을 주기에는 충분했다. ‘지금 감정에 휩쓸리지 말아요.’ ‘이름을 짓는 걸 서두를 필요는 없단다.’ 그녀의 말과 하늘의 말, 아무리 떠올려도 희미하기만 하던 기억 속의 달, 만나도 기억해낼 수 없던 그 사람. 이제 알 것 같았다. 달은 달이 아니었다. 하지만 달이 아닌 것도 아니었다. 밤하늘에서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달은 내 전부가 아니었다. 그것도 그저 나를 이루는 한 부분일 뿐이었다. ‘어떤 이들은 다시 살아가기 시작하구나. 하지만 어떤 이들은 계속 한 가지만 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어느 날엔가 모습을 감추고 영영 볼 수 없었어.’ 선명했던 달이 점점 희미해졌다.

처음으로, 아주 작게 반짝이고 있는 별이 보였다. 이제껏 달에 사로잡혀 보지 못했던 별이. 그 반짝임을 깨닫고 나자 마음속으로 들어와 박혔다. 하나, 둘, 셋, 넷… 하얀 등그라미만 그려져 있던 종이에 별들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모든 별들이 내 눈 앞으로 다가가서 마주하라.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기적이 아니던가?” 다시 서문을 보니,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누구도 “예전처럼 자신을 바라볼 수 없으리라”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포켓북보다 조금 더 큰 판형의 168쪽에 불과한 이 책은 단숨에 독파할 수 있었다. 간혹 가늘기까지 어려울 만큼 큼직한 수차들이 걸림돌이 되기는 했지만, 핵심만 짚으면서 내달렸다. 다행이 제목이 붙은 11개의 장으로 구성을 되어 있어서 핵심만 짚고 내달리는 일기가 어렵지 않았다.

이 책의 핵심내용은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이다. 십여 년 전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 우리나라에도 로또열풍이 불고 있었다. 수백억짜리 로또벼락을 맞은 사람에 관한 불길한 소식도 전해졌지만, 거의 모두가 로또당첨이라는 기적을 희구하던 때였다. 그런데 이 책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몸이, 훨씬 더 희박한 확률로 탄생한,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임을 역설하고 있다.

<끝>

백록문학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권하고 싶은 책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 봄의 신비> 앙드레 지오르당/

이규석 옮김/동문선



희박한 확률로 내가 탄생했다는 기적적인 사실, 나는 지구 전체 인구의 1만 배에 달하는 세포들을 고용하고 있는 초대형회사의 회장이라는 기적적인 사실 등을.

제목에 끌려 손에 잡게 된 논문이나 책을 다 읽을지 여부를 나는 서론과 결론을 읽어보고 정한다. 그런데 이 책의 마지막 네 문장이 나를 사로잡았다. “당신의 습관을 버리게 될 것이라고 짐작했다. 이 책을 덮고 말없이 거울 속의 당신을 바라보라. 당신에게 다가가서 마주하라.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기적이 아니던가?” 다시 서문을 보니,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누구도 “예전처럼 자신을 바라볼 수 없으리라”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포켓북보다 조금 더 큰 판형의 168쪽에 불과한 이 책은 단숨에 독파할 수 있었다. 간혹 가늘기까지 어려울 만큼 큼직한 수차들이 걸림돌이 되기는 했지만, 핵심만 짚으면서 내달렸다. 다행이 제목이 붙은 1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핵심만 짚고 내달리는 일기가 어렵지 않았다.

이 책은 누구나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이다. 십여 년 전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 우리나라에도 로또열풍이 불고 있었다. 수백억짜리 로또벼락을 맞은 사람에 관한 불길한 소식도 전해졌지만, 거의 모두가 로또당첨이라는 기적을 희구하던 때였다. 그런데 이 책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몸이, 훨씬 더 희박한 확률로 탄생한,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임을 역설하고 있다.

이 ‘치밀한 거인’이 자신이 거인임을 인식하여 ‘당당한 거인’이 되어 자신이 초래한 생태위기에 대처함은 물론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인 자신의 몸의 가치를 오늘 당장 충분히 누리는 데에도 이 책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각 장은 바로 이 기적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부모의 만남부터만 셈하더라도 이미 복권에 여러 번 당첨될 확률보다 더

송성희 독일학과 교수

제주학연구센터·대학 연구기관 협력 필요

기고 제주학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며



와 반성을 해볼 때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센터는 연구 공모지원사업의 실시, 제주학 아카이브의 온라인 구축 운영, 제주어 중점연구 등 궁극적인 연구사업을 주로 수행해 왔다.

그러나 제주학의 다양한 분야별 연구가 부족한 편이며, 복합적이며 공동협업을 요구하는 대형과제 연구를 기획·수행하는 데 학제를 보았다. 제주학 아카이브의 구축 또한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공동과 민간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아카이브 센터의 존재는 아직 꿈에 불과하다. 시민과 함께 하는 제주학의 대중화·보편화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센터가 가장 유능한 연구인력이 포진한 대학의 유사 연구기관과 무슨 차별성을 갖는지 설득해낼 수 없을 것이다. 차제에 센터가 해야 할 공공적인 일이다. 무엇인지 정립하지 않으면 센터는 대수롭지 않은 ‘또 하나의 연구기관’에 그쳐 버릴 것이다.

센터가 확실한 대안 연구기관으로 정립되어야 한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가령 대학에 제주학 관련 연구와 학생 교육, 학문 후

속세대 양성에 주력한다면, 공공 연구기관인 센터는 연구 지원, 시민 교육, 학문 후속 세대가 참여할 공동 연구사업 개발과 시행에 중점을 하는 등 상호 적절하게 역할 분담하고 보완·협력하고 교류할 필요가 있다.

모든 연구사업을 민간 연구단체 및 연구자 중심으로 운영하되, 센터는 기획과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면 될 것이다. 청소년 교육 사업, 시민강좌, 교양서적 발간 등 시민을 향해 ‘열린 제주학’도 센터의 공동사업에 해당된다. 제주학 대회를 열어서 단순한 학술대회를 넘어선 시민과 학생·청소년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학술축제의 장을 개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사업을 대형 공동 사업으로 추진하여 관련 학문 후속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인큐베이터 사업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고전번역사업 등 토대 연구사업, 제주통사 및 제주어대사전 등의 대형 편찬사업 등은 대학과 교류 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제주학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연구 경력과 역량 등 토대를 갖추고 있는 대학 연구기관과 새로이 공동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는 제주학 연구센터 간에 공동·협력의 원칙 위에 상호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가능하리라고 전망해 본다.

4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관 소회의실에서 제1회 제주학 정책포럼이 열리고 있다.

다양한 문화가 차별없이 공존하는 지역사회 돼야

제주의 다문화사회 진입과 다문화교육의 필요성

제주 사회를 제대로 알려면 기본적으로 제주사회가 갖는 자연적 환경과 제주인의 생활상, 그리고 역사적 경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것으로 규명해 볼 수 있다. 제주 사회는 제주의 환경적, 정치적, 경제적 요인에 의해 국내외 이주자들에 대한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성격을 보이는 역사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제주인이 지난 배타성과 차별성과는 별도로 현재 급속하게 제주 사회가 외국인 이주에 따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의 양적 증가는 다문화와의 공생 문제가 표면화되는 계기를 만들어 줬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다문화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최근에 제주 지역 다문화 가족이 늘어난 계기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에 따른 이주노동자 유입과 결혼 적령기의 농어촌 거주 남성들이 국내 배우자를 만나기 힘들어지면서 국제결혼이 보편화되며 결혼이민여성이 증가했다. 또한 제주 지역 다문화 가족 등의 외국인 수 증가 현상을 최근에 불고 있는 국내인 제주이주 증가 현상과 제주 지역 거주체계 비율 급증 상황과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

이처럼 다문화 사회에 빠르게 진입하면서 제주 지역 외국인의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2015년 1월 기준으로 외국인 수는 1만9903명으로, 이는 2014년 1월 1만5568명 보다 4335명 (27.8%)이 증가했고, 도내 주민등록 인구 대비 3.3%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증가율 11.0%에 비해 제주의 경우 27.8%로 전국에서 외국인 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혼인귀화자를 포함한 결혼이민여성은 2918명으로 2014년 1월 2696명 보다 222명 (8.2%)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제주 지역 결혼이민여성 증가세 (8.2%)는 세종특별자치시 (9.6%) 다음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전국 결혼이민여성이 2014년 24



3월 31일 제주글로벌센터에서 제주이주여성들이 선거 참여 체험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제주학의 연구와 대중화에 매진하고, 민간 연구단체 및 연구자를 중심으로 기획·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공동연구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이러한 내외적 환경과 배경 속에서 2011년 8월 출범했다. 이제 설립 5주년이 되는 제주학연구센터가 지방정부가 출연한 첫 제주학 관련 공동 연구기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회고

교수시론

고봉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자세
매일 정한 분량을 쓰는 것
수불석권 필일오 삶에 적용
인생살이는 곧 장편소설
덕으로 읽고 삶으로 쓴다

”

기자수첩

김해건
편집국장

2014년 12월 당시에 정문의 교통 문제에 대해 불만이 많았던 기자는 취재를 하기 위해 도청에 전화했다. “제주대 정문의 교통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도청 관계자는 “그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에요. 차량관리는 차지경찰단이 하고 있어요”라고 답했다.

차지경찰단에 전화를 해보니 “안

수불석권(手不釋卷)과 필일오(必日五)

송나라 구양수는 침상, 말 안장, 화장실이 책 읽기 가장 좋은 곳이라 했다. 필자가 좋아하는 독서 공간은 ‘비행기 안’이다. 피곤해 잠을 청할 때도 있지만 깨어있을 때는 한권의 책에 온전히 집중한다. 반면에 필자의 연구실은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서인지 몰입하기 쉽지 않다. 오히려 턱 트인 커피숍이나 버스 안이 책 읽기에 좋다. 독일 유학시절 전철(S-Bahn, U-Bahn)이나 버스 안은 내 독서 공간이었다.

지금은 ‘아들 정훈이를 보는 시간’이 내 독서 시간이다. 정훈이가 TV 애니메이션을 볼 때 난 옆에서 책을 읽었고, 밖에서 뛰어놀 맨 책을 들고 다녔다. 최근에는 아이폰을 보거나 명 때리는 시간이 많아져 많이 아쉽다. 나에겐 독서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하나 더 있다. ‘시험감독 시간’이다. 예전엔 조교에게 시험감독을 부탁하곤 했는데, 시험감독 시간이 몰입할 수 있는 시간임을 알고는 좀처럼 남에게 부탁하지 않는다. ‘검증된’ 나의 추천도서 한 권을 들고 시험장에 간다.

손에서 책을 놓지 말라. ‘수불석권(手不釋卷)’이라는 사자성어는 ‘삼국지’의 ‘여동전’에 나온다. 손권의 신하인 여동은 무술이 능했으나 학문을 소홀히 했다. 손권은 여동에게 손에서 책을 놓지 말기를 권했다. ‘수불

석권’을 실천한 여동은 ‘괄목상대(刮目相對)’의 주인공이 된다. ‘괄목상대’는 여동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괄목상대’의 전제 조건이 ‘수불석권’이라는 점이다.

어느 날 소설가 김훈이 이런 말을 한 것을 봤다. “책을 읽고 글을 몇 자를 쓰자고 생각하고 지기려고 한다. 항상 마감은 정해놓지 않고 하루 다섯장을 쓰자고 정해놨다. 200자 원고지 기준이다. 책상에 ‘필일오(必日五)’를 적어놨다. 하루 5매라는 뜻이다.” 처음에는 김훈 작가도 나랑 똑같이 ‘하루 5장 쓰기를 고민하고 있구나. 그는 실천하는데 나는 실천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 5장의 기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무심코 ‘필일오’의 기준이 200자 원고지라는 것에 눈에 들어왔다. 200자 원고지로 5매면 A4용지로는 몇 장인지 궁금해졌다. A4용지 한장이 200자 원고지 8~9매 정도였다. 그러면 김훈 작가는 A4용지 한장이 채 되지 않으면 분량을 하루 목표로 설정한 것이다. 난 이제

한 글자 한 글자가 긴 글을 쓰게 한

다는 점을 깨닫는 순간이 있었다. 2013년 여름 유럽여행 때 형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한참을 걷고 있을 때였다. 산에서 강 쪽으로 내려왔는데 강가에서 올라다 본 산이 너무도 멀게 느껴졌다.

그런데 이 거리를 내가 걸어온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최근에 비슷한 생각이 들었다. 한라산이 훤히 잘 보이는 우리 집 바로 앞에 새 건물이 건축되고 있었다. 한라산 조망이 가리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봤다. 그래도 기초를 닦고 하나 하나 집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걸 가까이서 지켜보니 건축이 글쓰기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불석권(手不釋卷)과 필일오(必日五)는 ‘인생살이’에도 적용된다. 인생이라는 책은 장편소설과 같다. 그 책에는 인생의 굴곡이 있고 희노애락이 다 들어 있다. 인생이라는 책은 덕으로 읽는 책이고, 삶으로 쓰는 책이다. ‘인생이라는 큰 책’ 읽기와 쓰기를 계획을 하지 말라. ‘인생이라는 책’은 세상에서 유일한 책이고, 제일 중요한 책이다.

인생의 인생을 흥미진진한 연작소설로 작성해 보자. 자신의 스토리를 읽고, 자신의 이야기를 쓰자. 여전히 ‘인생 하수 학문 아류’에 머물러 있는 내 삶과 학문이지만 비상(飛上)의 날개를 펴고 날아보자.

사설

기본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출산율 저하, 대학 진학률 감소, 일자리 부족 등의 상황이 자주 언급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에서의 준비는 무엇이 필요할까? 아마도 교육기관의 기본에 충실했던 대학문화를 만들어 가는 노력이 가장 최선일 것이다. 몇 가지 고민해 볼 것을 보면, 체육대회 관련 1학기는 단과대학별로 행사가 이어지는데 교양과목의 경우 많은 학생들, 특히 저학년들은 학생회에서 만든 공연문을 제출하며 출석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과연 단과대학 학생회에서 공식적인 결석이니 출석으로 인정해 달라는 큰 붉은 색 사각형의 도장을 찍은 문서를 만들 수 있는지? 학생들은 인적사항만을 빙간으로 남겨두고 출력한 문서에 자신의 이름을 자필로 적어 효과 있는 서류로 알고 제출하고 있다. 이렇게 제주대 학생들은 허위 문서 만드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 학기 중 축제를 주말을 이용해 진행한다면 외부 참여자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영터리 공연문을 만들지 않아도 되고 수업시간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 바람직할 것이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입장에서 한국 사람의 약한 시간 개념 ‘Korean Time’을 제주대에서 먼저 극복해 보자. 강의나 업무는 9시 등 정시에 시작하는데, 이때 그 시작은 강의실이나 사무실에 밭을 들여놓은 것이 아니라 수업,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마쳐진 상태, 즉 양이 아니라 질로 학생, 교직원 모두

대동제 진정한 ‘도민의 축제’로 거듭나야

지난달 24일부터 3일간 2016 아라대동제 ‘삼일胙은 괜찮아’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대동제(大同祭)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대학이라는 지성인의 축제인 만큼, 그만큼의 명분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대동(大同)’인 만큼 일만아라가 하나로 합쳐질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학문 공동체에 특별한 결속력을 주는 행위이다. 대학의 문화 양성을 위한 제도화된 형식이기도 하다.

‘내일로 총학생회’는 도민의 축제이자, 모두가 함께 웃는 대동제를 기획했다. 강민우 회장은 오늘자 제주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축제 테마를 ‘즐기고 놀 수 있는 문화’로 기획한 만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면서 “매년 불거졌던 노점상 문제도 대화를 통해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는 등 전체적인 기획의 도를 생각한다면 성공적인 대동제 행사였다”고 자평했다.

대동제기간 내내 다양하고 이색적인 축제 프로그램도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우리 학교만의 작은 월드컵 워닝월드컵, 역대 아리스타 수상자들이 한곳에서 대결하는 아리스타 왕중왕전, 버블슈트를 입고 축구를 하는 ‘버블사커’, 일반 학생들과 총학생회가 함께 대결을 펼치는 ‘일만아라 vs 내일로’, 총학생회 임원을 찾는 ‘내일로 공개수배’, ‘이면지 멀리 던지기’, ‘제자리 뒤로 멀리 뛰기’ 등 예년과 달리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즐길 수 있는 축제 프로그램이 다수 선보였다.

학생들의 축제참여 열기나 현장만족감도 높은 편이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됐다는 평가다. 대학원생을

비롯해 부쩍 늘어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자국 음식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도 기획돼 다문화사회에서의 문화교류 측면에서 시야를 넓히는 기회 됐다. 이번 대동제가 일부 우천에도 불구하고 ‘축제다운 축제’라는 평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빛나도록 축제 기획을 위해 헌신한 총학생회나 옷은 일을 마다하지 않은 자원봉사 학생들, 교직원 모두가 축제를 위해 힘썼기에 가능했다.

현재로서 우리 대동제의 숙제는 ‘도민의 축제로 승격될 수 있는가’이다. 대동제를 현장에서 지켜본 지역언론 기자들도 “대동제가 여전히 먹고 즐기는 프로그램이 많아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는 부족했다”며 이번 대동제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물론 대동제에 대한 지역민들의 평가는 그들의 뜻이지만 대학과 재학생들의 인식 전환이 도민 축제를 위한 시발점임은 분명하다. 지금까지 제주대 축제는 사실상 지역민과 동떨어진 감이 없지 않았다. 대학생들의 놀이문화도 필요하지만, 학술과 문화적 요소를 두루 다루면서 소모적인 행사를 뛰어넘는 성과물을 만들어 가려는 시도를 할 때가 됐다.

아리대동제는 대학문화와 지역문화의 접점이다. 가령 사회 전반적으로 ‘가벼운 문화’가 판을 친다면 대동제는 오히려 소모성 행사가 아니라 내면을 깊이 하는 성찰과 진지한 문화의 배양이 사명이 되기도 한다. 아리대동제가 순수한 아마추어리즘에 입각한 제주문화의 생산기지가 되려면 학교 담장을 넘어 지역민과 함께 하는 지역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그럴 때 대동제는 진정한 대동의 의미 확산과 함께 진한 생명력을 담보할 수 있다.

풀꽃

what's up! <요즘 어때>



학생회관 3층, 총여학생회와 동아리 연합회 사이에 대문이 까맣게 칠해진 동아리방이 있다. 치킨 동아리, 본격 자전거 흥보동아리 등 다양한 동아리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곳은 흔인음악 동아리 ‘블랙다이아몬드’이다. 아마 오늘 풀꽃은 ‘스웨이’이 넘칠 것 같다. (스웨이 swag, 간지난다, 느낌있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 ‘피부도 깨맣고 음악도 깨맣지만 해치지 않아요!’

블랙다이아몬드 일명 ‘블다’. 블다는 흑인을 상징하는 ‘BLACK’과 부를 상징하는 ‘DIAMOND’의 의미로 초대 회장 윤용호(a.k.a BigD)와 부회장 문성중(a.k.a 구도자)에 의해 회원수 22명의 동아리로 출범했다.

‘블랙다이아몬드’라는 정체성이 불분명한 이름 때문에 고조를 겪은 적도 많다. 댄스 동아리나 밴드 동아리로 착각해 문을 두드린 경우가 많다는 것. 후문에 따르면 댄스 동아리인 줄 알고 입부를 했다가 힙합의 신이 되어 동아리를 졸업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 아직은 쇼미더머니 버프

블랙다이아몬드는 ‘쇼미더머니’와 ‘언프리티 랩스타’가 흥행한 이후 작년 대비 회원 수가 10~20%가량 늘었다(작년 총원 30~40명 기준). Mnet에서 내리는 단비가 바다 건너 제주대학교 학생회관 3층까지



네린 셈이다. 그래서인지 동아리방 문에는 쇼미더머니 포스터가 붙어있다.

◇ 힙합 동아리보단 문화 동아리

블랙다이아몬드는 장르를 두고 만든 동아리가 아니라 문화를 기반으로 한 동아리이다. 그래서 제주의 동아리 문화와 공연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동아리의 목표이다. 흥전의 원(원)에 환경학과 3) 블랙다이아몬드 회장은 “블랙다이아몬드는 R&B, 래퍼를 취미로 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도 나누고 가사도 쓰고 공연도 하는 곳”이라며 “열정이 가득한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만약 제주대의 제2의 비와이나 크라쉬 같은 힙합 싱어송라이터를 찾는다면 블랙다이아몬드 동아리방 문에 소심하게 붙어 있는 ‘라면 먹고가’라는 명제를 핑계로 동아리 문을 두드려 보는 것은 어떨까? 김민경 기자

삶 속에서 접하는 지리학

한희주
지리교육전공 3

지리교육과 학생으로서 현재 지리학의 위상이 낮아지고 있다고 느낀다. 한때, 미국과 우리나라의 현 상황과 같았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지리적 문맹이 단순히 교육차원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곧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지리교육 부흥의 동기가 됐다. 이는 우리나라 지리교육도 부흥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고 동시에 현재 우리나라 지리학의 문제점을 시사해준다.

미국의 지리교육과정을 통해 본 한국의 지리교육과정의 문제점은 첫째로 지리교육 과정이 체계적으로 짜여있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의 지리교육과정은 입지, 장소, 장소들 내의 관현성, 이동 그리고 지역의 5개 근본주제를 만들어 그것을 바탕으로 여리가지의 핵심 아이디어가 만들어져 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지리가 광범위한 학문이라 주장하면서 ‘지리를 통해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배우나?’라는 질문에 대해 한마디로 답변하지 못한다. 지리교육과정에도 어떤 것을 배우는지 간단명료하게 제시돼 있지 않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지리적 지식을 실제로 활용하기보다는 단순히 지식 습득에 그치게 된다는 점이다. 음식이나 의상, 거주하는 형태 모두 지리에 속한다. 하지만 한국교

실에서는 실생활과 ‘지리’가 밀접한 관련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지리교육은 단순히 암기를 요구하는 탐구 과목 중 하나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실생활의 어떤 부분이 지리와 관련 있는지 알지 못한다. 즉, 지리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삶 속으로의 적용’을 놓치게 된다.

따라서 한국의 지리교육은 적어도 지리가 무엇인지,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떤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지, 지리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어떤 시각으로 지리를 접할 수 있는지를 알려줘야 한다. 매일 가는 학교나 집이 그곳에 위치해 있는 이유, 심지어 학교와 집으로 가는 길조차도 모두 지리이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어떤 학문보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학문이 지리이며 이를 제대로 알고 활용한다면 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행해진다면, 지리교육의 중요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깨닫게 될 것이고 지리학의 위상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다.

흔히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한다. 가족들의 소중함을 돌아보는 날이 유난히 5월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주로 5일 어린이날과 8일 어버이날이 가정의 날을 대표하는 날들이다.

그런데 매년 5월 11일도 의미 깊은 날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5월 11일은 입양의 날로 국내에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고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날이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 3월 23일 ‘시·도 입양적설 및 추진계획 보고회의’에서, 가정의 달 5월에 1가정이 1아동을 입양해 새로운 가정(1+1)으로 거듭난다는 취지에서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결정했다. 기존의 혈연 중심 가족문화나 비밀입양 세태 등을 극복하고 입양의 날을 통해 입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국내 입양을 장려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어린이날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주최되고 있다. 그러나 고아들은 어린이날이 즐겁지는 않을 것이다. 평범한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놀라 가는 평범한 일들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어린이날이 있는 5월이 수록 이런 아이들의 마음에 귀 기울여 주고 싶은 생각

이 듣다.

하지만 입양의 날은 어린이날처럼 많이 알려지지 못했다. 여러 지역에서는 입양의 날을 맞아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올바른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지만 홍보도 부족하고 그 수도 많지 않다. 미친가지로 제주도에서도 입양의 날을 맞아 제주 입양기획 주도에서도 입양의 날을 맞아 제주 입양기획인 흥아동복지센터에서 캠페인이 운영되고 있지만 충분한 홍보활동이 부족하다.

입양에 대한 관심이 꼭 입양을 생각하는 부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입양 아들이 왜 입양아가 됐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많아 아동인권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 아동인권보호 차원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입양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5월은 ‘가정의 달’인 만큼 가족들의 소중함을 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반대로 소중함을 느껴볼 ‘가족’이라는 존재도 주어지지 못한 아이들을 생각해보면 5월은 이런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입양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

» 잃어버린 동심을 찾아서 - 제주 도라에몽 100 비밀도구전 관람기

“너의 꿈을 이뤄 줄게 난 도라에몽”

어린시절 우리의 친구 도라에몽과 함께 동심 찾아
다양한 피규어, 작가 콘티, 만화책 등 즐길거리 많아

파란 봄, 동그란 얼굴, 2등신의 양증맞은 신체사이즈를 가진 너구리로 오해받는 22세기에서 온 고양이형 로봇이 있다. 그 이름은 바로 도라에몽이다. 도라에몽은 일본의 만화가 후지코 F 후지오의 작품으로 1969년부터 일본의 학습지 네 권에서 연재를 시작했다. 에피소드 형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단행본 45권이 출판됐으며 2010년 기준 전 세계 누적 판매 부수 2억1000만부의 판매고를 올렸다. 1979년에는 TV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돼 1000편 이상의 에피소드가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동글동글 짜리몽땅 나는 도라에몽

도라에몽은 노진구(일본명 노비타)의 불행한 미래를 바꾸기 위해 후손인 노장구가 보낸 로봇이다. 진구는 같은 반 친구인 통통이(타케시, 별명 자이안)에게 늘 맞기 일쑤고 비실이(스네오)에게 놀림을 당한다. 진구는 공부도 못하고 낮잠자기를 좋아하는 평범하고도 약간은 모자란 소년이다. 그런 진구를 위해 도라에몽은 배에 달린 4차원 주머니에서 비밀도구를 꺼내 도와주곤 한다. 만화의 내용은 “도라에몽~”하고 울며 나타난 진구가 “통통이와 비실이에게 괴롭힘을 당했으니 도와달라”고 하는 패턴이 클리셰로서 정립돼 있다. 그 외에 짹사랑하는 이슬이(시즈카)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고구분투하는 장면이 그려지기도 한다.

이쯤에서 도라에몽의 비밀에 대해 알아보자. 파란색은 도라에몽의 상징과도 같은 색깔이다. 그런데 도라에몽이 왜 파란색일까. 그리고 고양이 로봇인데 왜 귀가 없을까. 배

우 심형탁처럼 도라에몽의 열혈 팬이 아닌 이상 ‘도라에몽은 원래 파란색 아니었어? 도라에몽이 고양이 로봇이었어?’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이라 예상한다. 도라에몽은 원래 노란색으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낮잠을 자던 중 로봇 취가 귀를 갉아 먹게 되고 수술을 받지만 의사인 도라에몽의 귀를 떼어내 버린다. 귀가 없어진 도라에몽은 3일 내내 울기만 하는데 결국 노란 페인트 칠이 벗겨져 파란색이 됐다고 한다. 거기다 목까지 쉬어버려 지금의 결절한 목소리가 됐다. 그 이후 도라에몽은 취를 보면 기겁을 한다고. 고양이 로봇임에도 취를 유독 무서워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또 도라에몽에 관한 재밌는 사실. 도라에몽은 프로필 상 키, 머리둘레, 가슴둘레, 몸무게 모두 129.3이다. 작가인 도라에몽의 신체 사이즈를 129.3으로 설정한 이유는 도라에몽 연재 당시 일본 초등학생의 평균 신장이 129.3cm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도라에몽과 타임머신 타고

잃어버린 동심을 찾기 위해 어린시절 친구 도라에몽을 만나기 위해 찾은 곳. 바로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위치한 미니랜드 특별전시장에 마련된 도라에몽 비밀도구 전시회이다. 도라에몽처럼 파란 하늘을 기대했지만 희색빛 구름에 뒤덮인 하늘은 비를 머금은 구름들로 가득했다. 미니랜드 주차장 한켠에 마련돼 있는 특별 전시장은 숫자 100 모양의 안경을 들고 있는 커다란 도라에몽의 얼굴 옆으로 여려 비밀도구들이 그려져 있었다. ‘너의 꿈을 이루어 줄게. 난 도라에

몽!’이라고 쓰인 문구가 마음을 벽차게 한다. 진구의 수호천사이자 친구인 도라에몽은 어린시절 우리에게도 결을 지켜주던 친구가 돼 줬고 어른이 된 옛 친구에게 여전히 ‘우린 친구’라며 손을 내민다. 두근거림과 풍물한 마음으로 도라에몽의 작고 동그란 손을 잡아본다. 체구는 작지만 마음은 전 세계를 아우를만큼 넓은 친구의 손을 잡고 타임머신을 올라 타 어린시절의 천방지축 괴로 돌아가본다.

◇모두의 친구 도라에몽

전시장 내부에는 다양한 도라에몽 피규어, 작가의 제작 콘티가 전시돼 있고 만화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 평면과 입체로 다양하게 도라에몽을 만나볼 수 있다. 또 도라에몽 턱후 일명 ‘심타쿠’로 불리는 배우 심형탁의 도라에몽 애장품이 전시돼 있어 전시관을 구경하며 그의 도라에몽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 그가 이곳에서 찍었던 사진과 그의 애장품들을 보며 도라에몽은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이 된 옛 친구에게 여전히 행복을 주는 존재라는 생각을 했다. 도라에몽은 단순한 만화 캐릭터가 아닌 존재만으로도 행복한 여전히 사랑스럽고 언제나 곁에 있어주는 친구인 것이다. 벽면에는 이곳을 방문한 어린친구들과 어른친구들의 도라에몽 그림으로 도배돼 있다. 그림들에서 도라에몽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진다. 많은 사람들의 그림을 보며 아직도 도라에몽을 추억하고 있고 여전히 인기 있는 캐릭터라는 것을 실감했다. 그림이 그려진 벽 옆으로는 친구의 방이 마련돼 있다. 책상과 도라에몽이 자는 2층으로 된 웃장. 그리고 방 가운데에는 친구가 웃으며 앉아있다. 방으로 들어가 친구와 나란히 앉은 아이들의 모습이 사랑스럽다. 도라에몽 애니메이션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아이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야외 전시장으로 나가면 100개의 비밀도구를 하나씩 들고 있는 도라에몽들로 가득하다. 100개의 도라에몽을 보고 있으면 순간 어린아이가 되어 도라에몽 속을 뛰어다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이곳에 있으면 누구든 어린아이가 되고 만다. 물건을 과거와 미래의 모습으로 바꿔주는 타임보자기, 복사해주는 식빵,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램프, 어디로든 갈 수 있는 어디로든 문까지. 애니메이션 속 도라에몽의 탑나는 비밀도구들이 눈앞에 펼쳐진다. 또 타보고 싶은 대나무 헬리콥터를 머리 위에 두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까지 설치돼 있어 사진을 찍는 즐거움에 시간가는 줄 모른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핸드폰 속 앨범에 도라에몽 사진이 한가득 담겨 있을 것이다.

◇“난 네가 정말 좋아 도라에몽”

하고 싶은 일 모두 할 수 있음 좋겠네
하늘 만큼 땅 만큼 너무나 많은 꿈들
모두 모두 모두 다 이루게 해준다네
신비한 주머니로 이루어 해준다네
하늘을 마음껏 날고 싶어라
좋아 대나무 헬리콥터
양양양 난 니가 정말 좋아 도라에몽
양양양 난 니가 정말 좋아 도라에몽

전시 관람 내내 스피커에서 들린 도라에몽 주제곡이다. 어린이들은 노래를 흥얼거리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노래만 들어도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이 전염되는 듯 했다. 도라에몽과 함께한 하루. 어린아이의 웃음소리와 도라에몽의 웃는 얼굴에 이곳에 있는 모두가 행복에 젖어 있었다. 도라에몽과 함께하는 동안 정말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잃어버린 동심을 찾은 기분이 들었다. 비록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



숫자 100 모양 안경을 든 도라에몽(왼쪽). 친구의 방 가상체험 공간(오른쪽). 비밀도구 100개를 순회하고 있는 다양한 표정의 도라에몽들(위). 어디로든 문으로 들어가면 100개의 도라에몽들이 기다리고 있다(아래).

시 현실의 자신과 마주해야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친구 도라에몽을 추억하고 기억하는 한 우리는 여전히 아이의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는 영원히 늙지 않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을까. 전시장에 들어설 때 “너의 꿈을 이루어 줄게”라고 도라에몽이 말했다. 전시장을 나서며 우리는 도라에몽에게 이렇게 답할 것이다. “네가 나의 꿈인걸. 난 네가 정말 좋아. 도라에몽”

김정희 기자

» 제주의 맛과 멋…이중섭거리 플리마켓 탐방기

다른 시장에서 볼 수 없었던 문화의 장…이중섭거리

예술가들이 상인으로 변모… 일반적 시장과는 달라

시장의 규모 매우 열세, 한계로 지적

젊은 층들이 북적거리는 서울의 흥대 앞, 경리단길과 같은 동네에서는 주말이면 어김 없이 플리마켓이 들어선다. 본래 플리마켓 이란 중고 물품을 사고 팔거나 교환하는 벼룩시장과 같은 개념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의미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 거리의 예술가들이 본인들의 작품을 선보이기도 하며 야기자기한 핸드메이드 제품들을 내놓기도 하는 복합적 문화공간으로 통용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에도 이런 플리마켓이 존재하고 있다. 이번에 기자가 방문한 곳은 서귀포 매일 올레 시장 앞에 위치한 이중섭 거리의 플리마켓이다.

◇일반적인 시장과는 조금은 달랐다

농산물과 머거리만 파는 시장을 생각했기 때문일까? 돌아오는 휴일마다 열리는 이 플리마켓은 일반적인 곳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마치 예술인들이 거리로 나와 본인들의 장기를 선보이는 듯 했다. 집에서 직접 만든 수제쨈, 쿠키 등 머리를 비롯해 액세서리, 천연염색을 한 갈옷 등 친환경 제품들이 팔기도 했고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곳도 있었다.

◇자유로움을 느꼈다

길 한복판에서 기타를 꺼내 노래를 부르는 중년의 남성 두명이 눈에 들어왔다. 긴 수염을 지닌 외모를 통해 미묘한 포스를 뽐내고 있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옛 트로트부터 팝까지 장르를 불문했다. 그들은 본인들이 부르는 노래에 심취해 즐거워하고 있었다.

또한 외국인 상인들이 눈에 띄게 많았다. “이거 얼마예요?”라고 한국말로 질문을 하면 “칠천원이요”라며 또박또박 대답을 하곤 했다. 그 외국인이 보인 선한 미소 속에서 일상의 치열한 경쟁이 아닌 여유로움을 볼 수 있었다.

◇서귀포 문화예술 디자인 시장

이중섭거리의 옆길에는 아트마켓으로 알

이 주기적으로 추첨을 통해 판매 기회를 잡는다고 한다.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플리마켓의 한 상인은 “최근에 육지에서 내려온 관광객들과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찾고 있다”며 “앞으로 시장 홍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규모를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규모가 작다는 한계점 때문에 독특한 시장이라는 점을 느끼기도 전에 끝이 난 것이다. 도민들과 관광객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제주만의 독특한 플리마켓이 더욱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이라 기자



주말마다 열리는 이중섭거리의 플리마켓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독특한 디자인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있다(위). 예술가들이 거리로 나와 본인들의 장기를 뽐내고 있다(아래).